

“여자의 변신은 무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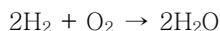
이 승 실 (특허청 무기화학 심사담당관)



“여자의 변신은 무죄! 나는 여자이고, 고로 과학자에서 공무원으로 변신한 나는 무죄!”
이 말은 특허청 심사관으로 있는 나를 과학자의 대열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말처럼 들리지만 나 스스로는 직접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이라는 보호막을 통하여 과학자들이 한 훌륭한 연구결과물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광의의 과학자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에, 또 과학 또는 공학을 전공한 후배들 특히 여성후배들에게 나의 일 그리고 나의 도전을 소개하고자 이 글을 쓴다.

나는 이공계과를 택한 많은 여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중·고등학교 때 퀴리부인의 꿈꾸는 과학도였으며, 실제로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내내 화학은 나에게 있어서 최

상의 학문이었다.



이 반응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는 차치하고, 두 개의 수소분자와 한 개의 산소분자가 만나 모(母)와 물성이 전혀 다른 물분자 두 개가 어김없이 만들어지는 화학은 질서 정연한 자연의 학문인 동시에 그 자체가 변신의 학문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변신의 학문을 즐겼기 때문일까, 나는 스스로를 변신시켜 보기로 하였다. 기초과학과 인간 삶의 거리감에 고민하던 나는 공무원으로의 변신을 시도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이자 산업에 유용한 발명들에 적절한 범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심사관의 역할은 기술에 법(法)을 접목시키는 정말 매력적인 일이었으며 지난 6년 간 정진없이 일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물론 내가 항상 변신에 능한 것은 아니었다. 학년말이 되고 졸업 때가 되면 새로운 학기에 대한 기대보다 정든 모든 것들과의 이별에 가슴 아파하였으며, 대학 4학년이 되어서도 진로를 확정하지 못하여 대학원 진학이 한 학기 늦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유학을 포기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도 낮은 땅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회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아니 앞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변화를 찾아 들어간 특허청에서는 함께 술잔을 돌리며 박사 특채되어 들어온 심사관들, 특히 여성심사관들을 외계인 보듯 하는 기존 심사관들과도 폭 넓은 인간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적극성을 보였기에 지금과 같은 변신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러한 적극성과 변신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고민을 나누었던 다른 여성심사관들 모두에게 있었기에 특허심사업무에서 더 이상 “여성”이라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새 천년에 즈음하여 최고의 화제가 되었던 책을 꼽으라면 단연 “누가 내 치즈를 훔쳤는가?”일 것이다. 변화의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책이 그토록 화제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비롯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두려움이라는 묵은 껍질로부터 무기개빛 날개를 가진 나비로의 변신을 꿈꾼다.